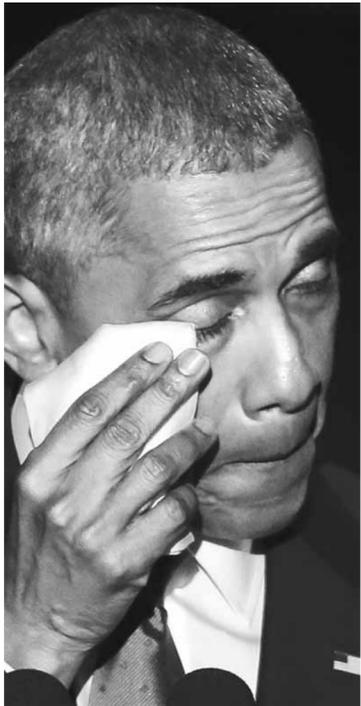


# 고별연설 눈물 오바마 “여러분의 변화능력 믿어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시카고의 대형 컨벤션센터 매코믹 플레이스에서 고별 연설을 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퇴임을 꼭 열을 앞둔 10일(현지시간) 고별연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손으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을 재확인했다”며 미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시카고의 대형 컨벤션센터 매코믹 플레이스에서 가진 고별연설에서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미국을 더 나은 나라, 더 강한 나라로 만들었고, 우리는 진보를 향한 기나긴 계주를 뛰면서 우리의 일이 항상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열심히 일하고, 이웃에 대한 마음을 갖고, 조국을 사랑하는 시민이 우리의 조국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시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치제도는 함께 더 나은 나라를 만들려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09년 우리는 직면한 도전을 더 강하게 헤쳐나갔다. 이는 우리가 이 나라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여러분 덕분에”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본 단위로 올라오는 워싱턴의 뉴스 폭풍 속에서 관점을 잃기 쉽지만, 미국의 역사는 분마다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 걸쳐 이뤄진다”며 “부모와 교사, 참정용사, 시민의 요청에 부

“**보통사람들 참여할 때 변화 일어나 당신들 위해 봉사한 내 삶의 영광 나는 멈추지 않을 것...함께 있을 것**”

## 미국민에 희망의 메시지 전해

응하는 이웃들이 미국의 이야기를 함께 써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면 비범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적이 수없이 많다”며 미국민의 단합을 주문했다.

그는 2009년 ‘오바마 레거시’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때와 마찬가지로 고별연설에서도 희망과 변화의 힘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변화는 보통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 함께 뭉칠 때 일어난다”며 “8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변화의 힘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변화는 미국적 사고의 뒤는 심장이자 담대한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건강보험개혁정책(오바마케어)을 ‘업적’으로 손꼽았다.

그는 취임 당시의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실업률을 1년 만의 최저치로 낮췄다고 강조했다. 오바마케어로 서민들도 적은 비용으로 건강보험을 갖게 됐다고 힘을 썼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에 대한 논란을 지적하며, 앞으로 경제적 기회 균등을 통해 민주주의가 더욱 신장하고 ‘진짜 진보’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그는 “불평등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시키고 있고, 도시 빈곤층과 시골의 많은 사람이 ‘게임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세팅돼 있고, 정부는 가진 자들의 이익에만 봉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생각이 정치에 대한 더 많은 냉소를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제 이슈가 중산층 백인 근로자와 차별받는 소수자들 간의 투쟁으로 ‘편 가르기’에 동원되는 것도 경계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에 반대하면서도 “민주적으로 더 나은 대책을 만들면 공개적으로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무슬림 입국 금지’ 공약에 대해서도 “무슬림계 미국인은 우리 못지않게 애국자들”이라며 “차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설 무대에 등장하며 “시카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넨 후 “미셀과 내게 시카고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며, 미국인의 힘과 근본적인 선

량함을 보여준 도시”라며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인 미셸 여사를 언급하며 말을 잊지 못한 채 눈물을 글썽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으며, 큰딸 말리아는 여러 차례 눈물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셸 여사에 대해 “당신은 내 아내이자 내 아이의 엄마일 뿐 아니라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다. 당신은 백악관을 모든 사람의 장소로 만들었다. 원하지도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닌 역할을 25년간 우아하고 고상하게, 그리고 훌륭한 유머를 갖고서 해왔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50년간의 연설을 마감하며 “당신들을 위해 봉사한 것은 내 삶의 영광이었다”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 마지막 부탁을 하고자 한다. 변화를 이뤄내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변화능력을 믿어라”라고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한 시민으로서 내 삶의 남은 간을 여러분과 함께 거기에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 우리는 이뤄냈다(Yes We Did).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는 말로 연설을 맺었다.

감색 양복에 파란색 넥타이를 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 도중 수차례 기립박수를 받았고 흑인 여성을 비롯해 일부 참석자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 소녀상 한·일 갈등...美 중재 나서나

### 케리 국무 3자 전화회담 검토

부산 소녀상 설치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에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 해결을 모색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존 케리 국무부장관이 각각 한국의 외교부장관·일본의 외무상, 혹은 3자 전화 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 양국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외교의 틀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자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출범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이 초조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두 나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6일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 회담을 하며 양국간 갈등에 대해 각 나라의 입장을 들은 바 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 측은 “황 권한대행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미 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화 통화 한 당일 일본 정부는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자국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토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9일 나가미네 주한 대사와 모리모토 총영사의 일본 귀국 이후에도 한일 양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 존 커비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9일 일본 정부의 일시 귀국 조치에 대해 “외교관이 오가는 것은 드물지 않은 관행(not an uncommon practice)”이라고만 말한 채 그 이상의 언급은 자제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0일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재작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우리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 한국 측도 그런 판단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9일 일시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 시기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 대응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이라는 게 교도통신 측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눈에 파묻힌 이스탄불 10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시민들이 눈으로 질척거리는 이스탄불 거리를 걷고 있다. 이스탄불에서 사흘간 지역에 따라 1m가 넘는 폭설이 내려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되고 임시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터키 기상청은 앞으로도 사흘간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 日 방위상 “北 ICBM 실용화 단계 안돼”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발사실험을 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실용화에 이르는 것은 단계라고 말했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북한이 지금까지의

미사일 발사에서 실제로 검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핵병기의 소형화, 탄두화의 실현에는 도달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이나다 방위상이 12일 1박 2일 일정으로 괌 미군기지를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그는 한일 관계 냉각으로 일본 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공조 공백을 우려하는 가운데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등을 방문해 미군의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대를 사찰할 계획이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산 소녀상이 철거돼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공통된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한일 양국간의 방위 협력을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 프랑스 대선 극우 열풍 1차 투표 선호도 조사 국민전선 마린 르펜 1위

오는 4월 치러지는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선호도 조사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가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르펜은 결선투표에서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에게 큰 표차로 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반(反)난민정서 등 유럽의 극우 바람에 편승해 지지기반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Ifop과 피위시일이 지난 3~6일 유권자 180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르펜의 1차 투표 선호도 26~26.5%로 1위에 올랐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꼽히는 공화당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는 24~25%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결선투표 선호도에서는 중도우파인 피용이 64%로, 36%인 르펜을 크게 앞섰다.

프랑스는 오는 4월 23일 1차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차 투표를 1·2위 득표자만으로 5월 7일 결선투표를 진행해 차기 대통령을 확정한다.

집권 사회당은 아직 후보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무소속 에마누엘 마크롱 후보는 이번 여론조사의 1차 투표 선호도에서 17~20%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h3>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h3> <p>북구 오룡동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번</p> <p>(본사건물, 연구실, 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 고속도로 진입 5분)</p> <p>토지 500평, 건물 904평</p> <p>★ 감정가 55억 매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p> <p>첨단 사무실 임대</p> <p>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p> <p>010-7384-7800</p>	<h3>상가매매 전문</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원지구 3층 건물 어룡신협 앞 토 97평 건 145평 / 1층 (공포매점) 2층~3층(상가) ▶매가 16억 8천 (용 5억) 보 1억 월 700만</li> <li>노대지구 (9층) 대단위 아파트 (코너자리) 토 251평 건 431평 1층 (식당/미용실) 2층 (식당/상가) 3층 (오피스텔 - 13개) (보1억6천 월 1천300만) ▶매가 27억</li> <li>월산동 (9층)상가 매매 (농성역 / 힐스테이트 5분) 토 132평 건 404평 1층 (은행) 2층~3층(상가) 4층~5층(독서실) 6층(주택) ▶ 매가 22억</li> <li>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천변로 전망 최고) (올리브영/편의점) (주차완비) 45평 보 1억 월 60만 ▶ 매가 1억4천만 (용5천)</li> <li>상무지구 오피스텔 매매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9평) 보 500만 월 40만 (용 2천4백만) ▶ 매가 6천9백만</li> <li>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토 151평 건 423평 광주에서 40분 / 전원주택 최고 위치 ▶ 매가 8천만</li> <li>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23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월,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보증금 500만</li> <li>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3천 5백만 (전세없음으로 내집마련)</li> <li>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155평) 12층 - 전망 훌륭,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매가 3천 5백만</li> </ol> <p>010-6670-9800</p>	<h3>법률 경매 (주) 대신경매</h3> <p>경매 추천 물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구매월동 (장례식장) 토 2919평 건 1,363평 현 장례식장 운영 사광주역 부 ▶감정가 110억 → 최저가 110억</li> <li>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시무나, 필드방, 헬스장 복합 상가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58억</li> <li>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료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li> <li>동구 수기동 (2층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 금남로 4가, 5가 역 2분거리 4차선도로점 / 2층 상가건물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1천</li> </ul> <p>직원 모집</p> <p>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p> <p>010-6670-9800</p>	<h3>첨단지구 식당임대</h3> <p>◆ 한우식당 장어집 강력추천 !!</p> <p>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p> <p>첨단 메가박스 첨단 산업단지 1분 삼성전자 정문 앞</p> <p>★ 보 5천 월 300만</p> <p>커피숍 임대 전대 정문</p> <p>북구 중흥동 모아아파트 후문 코너자리</p> <p>* 평수 - 15평</p> <p>◆ 올리모델링 즉시입주가능</p> <p>★ 보 2천 월 60만</p> <p>☎ 010-7384-7800 010-6670-9800</p>	<h3>평택 투자</h3> <p>대한민국 최고의 투자</p> <p>▶ 120만평 ▶ 110만평</p> <p>브레인시티/평택항 개항/미군부대 이전</p> <p>☆ 평택 매주 출발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로 모십니다.</p> <p>평택시 전원주택지 송탄역 5분!! 송탄사거리 1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수 1,610평 총 7필지분할 (토목공사 완료)</li> <li>● 최고 입지 조건 (개발시 손수익 5억!!)</li> <li>※ 1필지 200평 → 1억투자시 가능</li> </ul> <p>☎ 062-511-7800 010-6832-9700</p>
--	--	--	--	--